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전공의 공급불균형 실태에 대한 조사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정세환, 마득상, 박덕영

ABSTRACT

A survey on the imbalance of resident's supply for dental specialists system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Se-Hwan Jung, Deuk-Sang Ma, Deok-Yo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basic data on the imbalance of resident's supply for dental specialists systems. We collected valuable information from the registration status of residents, 2005. And 363 dental students of senior course, interns, 1st grade residents were surveyed and analyzed.

In order to achieve original purpose of dental specialists system, it is desirable to prepare the supply planning of resident in minor fields.

Key words : dental specialists system, resident's supply, minor fields

1. 서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세 차례의 입법예고와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에 대한 위헌소송 등의 난항을 겪으며 표류했으나,¹⁾ 2003년에 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²⁾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함으로써 2008년도에 최초의 전문의 배출과 더불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일반진료와 구분된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식적으로 양성

이 논문은 2003년도 강릉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구강진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강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치과진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도입의 긍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진료 영역이 구축된 10개과 모두를 전문과목으로 지정하고 시행토록 규정하였다.²⁾ 그런데 모든 전문과목들이 함께 발전하여 국민구강건강 향상과 치의학발전에 기여했다면 하는 정부의 바람은 2005년도 전공의선발결과 일부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심각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시작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현재 치과계 일각에서는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인턴제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3,5)} 이는 시행 2년 만에 전문의양성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조치여서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결방안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인턴수료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보다 인턴제를 폐지하여 치과의사면허취득자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기피 전문과목의 인력수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인턴제는 현재 전공의양성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현실점에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체계적인 현황파악과 예측자료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200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모집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예비지원자인 치대4년생과 인턴전공의 및 레지던트1년차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해 기피현상의 지속가능성과 이유 및 대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한 바 있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전공의 모집현황분석

복지부의 2005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모집현황 자료를 분석하여⁶⁾,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현황과 지역별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확보현황을 파악하였다.

2.2. 전문과목 기피관련 설문조사

2005년 5월에 전국 11개 치과대학 가운데에서 4개 대학 4학년생과 전국 43개 레지던트전공 수련치과병원 가운데에서 4개 치과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를 표본 추출하여, 자체개발한 질문지를 집단적으로 배부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전문과목 기피현상의 지속가능성과 이유 및 대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은 지역을 감안하여 임의로 추출하였는데, 중부권에서 경희치대와 부속치과병원을, 강원권에서 강릉치대와 강릉대 치과병원을, 전라권에서 조선치대와 부속치과병원을, 영남권에서 부산치대와 부속치과병원을 선정하였다.

질문지에는 관심전문과목과 특정과목의 전공의기피 현상의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한 견해를 담았는데,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의과전문의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 등을 참고하였다.⁷⁾

질문지는 집단적으로 배부하고 수거하였는데, 총 458부가 배부되고 최종적으로 363부가 수거되어 응답률은 79.3%였다. 전국치대 4년생은 총 864명이었는데, 이중에서 308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33명이 응답하였다.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는 각각 300명과 241명이었는데, 이중에서 83명과 67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73명과

57명이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는 SPSS 12.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3. 연구성적 및 결과

3.1. 전공의 모집현황분석결과

3.1.1.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현황

2005년도 전공의 확보현황은, 표1과 같이, 284명 정원에 241명이 확보되어 84.9%의 확보율을 보였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전체 미확보인원의 절반을 넘는 25명을 확보하지 못했고, 구강내과와 구강병리과는 각각 다섯명과 한명의 전공의를 확보했으며, 구강악안면방사선과와 예방치과는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1.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현황, 2005 (단위 : 명, %)

전문과목명	전공의 확보현황			비고
	정원(상대비율)	확보인원(상대비율)	확보율	
치과보철과	50(17.6)	47(19.5)	94.0	
치과교정과	44(15.5)	43(17.8)	97.7	
구강악안면외과	65(22.9)	40(16.6)	61.5	최다(25명)미확보
치주과	38(13.4)	37(15.4)	97.4	
치과보존과	36(12.7)	35(14.5)	97.2	
소아치과	33(11.6)	33(13.7)	100.0	
구강내과	10(3.5)	5(2.1)	50.0	5명 확보
구강병리과	1(0.4)	1(0.4)	100.0	1명 확보
구강악안면방사선과	6(2.1)	0(0.0)	0.0	전혀 확보 못함
예방치과	1(0.4)	0(0.0)	0.0	전혀 확보 못함
계	284(100.0)	241(100.0)	84.9	

3.1.2. 지역권역별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확보현황

최다 미달된 구강악안면외과의 지역권역별 전공의 확보현황은, 표2와 같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확보율이 낮았고, 지역권역별 확보율에 심한 편차를 보였다. 특히 대전·충남·충북지역은 7명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전공의도 확보하지 못했고, 제주지역의 경우 단 한명의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지역권역별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확보현황, 2005 (단위 : 명, %)

지역구분	세부지역구분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확보현황			
		정원	지원인원	확보인원	확보율
합계		65	42	40	61.5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35	26	25	71.4
지방	계	30	16	15	46.7
	대전·충남·충북	7	0	0	0.0
	강원	4	2	2	50.0
	전북	4	2	2	50.0
	광주·전남	7	8	7	100.0
	대구·경북	2	2	2	100.0
	부산·울산·경남	6	2	2	33.3
제주	0	0	0	-	

3.2. 전문과목 기피관련 설문조사

3.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3과 같았다. 대학생에 비해 전공의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남성들의 군미필자 비율이 높았다.

표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특성구분	세부구분	집단구분			
		치대4년생	인턴	레지던트1년차	전체
전체인원		233명	73명	57명	363명
대학·병원명	강릉	41(17.6)	15(20.5)	11(19.3)	67(18.5)
	경희	53(22.7)	20(27.4)	13(22.8)	86(23.7)
	부산	80(34.3)	21(28.8)	14(24.6)	115(31.7)
	조선	59(25.3)	17(23.3)	19(33.3)	95(26.2)
연령계층	24세이하	115(50.7)	23(32.4)	0(0.0)	138(39.0)
	25-29세	68(30.0)	46(64.8)	53(94.6)	167(47.2)
	30-34세	30(13.2)	2(2.8)	2(3.6)	34(9.6)
	35세이상	14(6.2)	0(0.0)	1(1.8)	15(4.2)
성별	남성	143(62.2)	40(54.8)	34(59.6)	217(60.3)
	여성	87(37.8)	33(45.2)	23(40.4)	143(39.7)
병역관계	군미필	89(62.2)	31(79.5)	27(79.4)	147(68.1)
	군필	49(34.3)	7(17.9)	5(14.7)	61(28.2)
	군면제	4(2.8)	1(2.6)	2(5.9)	7(3.2)
	기타	1(0.7)	0(0.0)	0(0.0)	1(0.5)

* 특성별 응답결과에서 무응답자는 제외되었고, 병역관계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임

† 괄호안의 숫자는 집단군내 세부구분의 상대비율임

3.2.2. 치대4년생의 졸업후 희망진로

응답한 치대4년생의 졸업후 희망진로로는, 표4와

같이, 고용의사 인턴 공보의 순이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인턴정원비율인 졸업생의 35%에 다소 미치지 못한 약 32%만이 인턴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2006년도 인턴정원확보에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턴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남성의 경우 군미필자일수록 높았다.

표4. 치대4년생의 졸업후 희망진로 (단위 : 명, %)

특성구분	세부구분	졸업후 희망진로 구분					
		인턴	군입대(공보의)	고용의사	원장	기타	합계
전체		72(31.7)	58(25.6)	90(39.6)	4(1.8)	3(1.3)	227(100.0)
연령계층	24세이하	53(47.7)	29(26.1)	26(23.4)	2(1.8)	1(0.9)	111(100.0)
	25-29세	15(22.1)	25(36.8)	26(38.2)	0(0.0)	2(2.9)	68(100.0)
	30-34세	4(13.3)	0(0.0)	24(80.0)	2(6.7)	0(0.0)	30(100.0)
	35세이상	0(0.0)	0(0.0)	13(100.0)	0(0.0)	0(0.0)	13(100.0)
성별	남성	37(26.2)	56(39.7)	44(31.2)	4(2.8)	0(0.0)	141(100.0)
	여성	35(41.7)	0(0.0)	46(54.8)	0(0.0)	3(3.6)	84(100.0)
병역관계	군미필	27(30.7)	55(62.5)	4(4.5)	2(2.3)	0(0.0)	88(100.0)
	군필	6(12.5)	2(4.2)	38(79.2)	2(4.2)	0(0.0)	48(100.0)

3.2.3. 전공의지원 최우선목적

인턴지원의 최우선목적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표5와 같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 임상경험충족과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을 보인 비율이 다소 높았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비율이 레지던트1년차에서 다소 높아 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

표5. 인턴지원 최우선목적 (단위 : 명, %)

집단군 구분	인턴지원 최우선목적				전체	P값*
	전문의가 되려고	임상경험 충족을 위해	막연한 미래의 불안감으로	기타		
치대4년생	38(49.4)	33(42.9)	6(7.8)	0(0.0)	77(100.0)	0.967
인턴	33(45.2)	32(43.8)	5(6.8)	3(4.1)	73(100.0)	
레지던트1년차	29(50.9)	22(38.6)	5(8.8)	1(1.8)	57(100.0)	
전체	100(48.3)	87(42.0)	16(7.7)	4(1.9)	207(100.0)	

* 기타를 제외한 X2검정결과임

표6. 레지던트1년차의 레지던트지원 최우선목적 (단위 : 명, %)

레지던트지원 최우선목적	응답자	
	수	백분율
2차병원에서 전문진료를 하려고	14	25.0
개업에 도움이 될듯해서	36	64.3
막연한 미래 불안감으로	1	1.8
기타	5	8.9
합계	56	100.0

레지던트지원 최우선목적으로는, 표6과 같이, 응답한 레지던트1년차의 64.3%가 개업에 도움이 될듯해서라고 응답하였다.

3.2.5. 관심 전문과목

응답자들의 관심전문과목은, 표7과 같이, 보철 교정 외과 치주 보존 등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예방 내과 방사선 병리 등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기할 사항은 인턴지원을 희망하는 치대4년생의 약 30%가량과 인턴의 약 23%가량이 우선적으로 전공하고자하는 전문과목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표7. 관심 전문과목 (단위 : 명, %)

집단군 구분	전문과목 구분											
	보철	교정	외과	치주	보존	소치	내과	병리	방사선	예방	없음	전체
치대4년생	8	10	10	8	13	3	0	0	0	3	24	79
	(10.1)	(12.7)	(12.7)	(10.1)	(16.5)	(3.8)	(0.0)	(0.0)	(0.0)	(3.8)	(30.4)	(100.0)
1순위	14	10	11	5	11	3	1	0	0	0	16	71
	(19.7)	(14.1)	(15.5)	(7.0)	(15.5)	(4.2)	(1.4)	(0.0)	(0.0)	(0.0)	(22.5)	(100.0)
인턴	9	6	5	13	11	3	0	0	0	0	8	55
	(16.4)	(10.9)	(9.1)	(23.6)	(20.0)	(5.5)	(0.0)	(0.0)	(0.0)	(0.0)	(14.5)	(100.0)
1순위	7	16	10	8	7	6	0	0	0	0	2	56
	(12.5)	(28.6)	(17.9)	(14.3)	(12.5)	(10.7)	(0.0)	(0.0)	(0.0)	(0.0)	(3.6)	(100.0)
레지던트	9	7	9	3	6	4	1	0	1	0	2	42
	(21.4)	(16.7)	(21.4)	(7.1)	(14.3)	(9.5)	(2.4)	(0.0)	(2.4)	(0.0)	(4.8)	(100.0)

3.2.6. 전공의 생활만족도

전공의들은 현재 생활전반에 대해 약 76%가량이 만족하고, 약 19%가량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표8).

표8. 전공의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집단군 구분	만족도 구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별로만족못함	전혀만족못함	판단어려움	
인턴	4(5.5)	51(69.9)	15(20.5)	1(1.4)	2(2.7)	73(100.0)
레지던트1년	4(7.0)	40(70.2)	9(15.8)	0(0.0)	4(7.0)	57(100.0)
전체	8(6.2)	91(70.0)	24(18.5)	1(0.8)	6(4.6)	130(100.0)

3.2.7.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이유

2005년도 전공의선발결과 5명이하의 인원을 확보한 구강내과, 구강병리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를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으로 규정하였다. 이들 전문과목을 기피한 이유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표9와 같이, 개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전문지식기술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기간이 길어서, 취업기회가 넓지 않아서 순이었다.

치대4년생과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 간에 우선순위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P>0.05)

표9.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이유 (단위 : 명, %)

집단군 구분	기피이유 구분						전체
	개업에 도움 되지 않아서	매력적이지 않아서	기간이 길어서	취업기회가 넓지 않아서	기대수입이 낮아서	기타	
치대4년생	73(32.6)	49(21.9)	30(13.4)	33(14.7)	21(9.4)	18(8.0)	224(100.0)
인턴	13(18.8)	18(26.1)	17(24.6)	11(15.9)	5(7.2)	5(7.2)	69(100.0)
레지던트1년	8(14.8)	16(29.6)	15(27.8)	10(18.5)	3(5.6)	2(3.7)	54(100.0)
전체	94(27.1)	83(23.9)	62(17.9)	54(15.6)	29(8.4)	25(7.2)	347(100.0)

* x2검정결과 집단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음 (P=0.052)

3.2.8.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의 해결대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표10과 같이,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지원 전공의가 있을때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 공식선발이후에도 추가모집을 허용하는 방안, 인턴수련기간을 없애고 레지던트수련만 시키는 방안, 50만원가량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방안 등의 순이었다.

집단군간에 대책별 응답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었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P>0.05)

표10.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 (단위 : 명, %)

집단군 구분	기피전문과목에 대한 대책 구분							전체
	수련기간2년으로 단축	우선정원 배정	추가모집 허용	인턴없애고 레지던트수련만 시킴	수련보조수당지급	기타		
치대4년생	54(24.0)	53(23.6)	46(20.4)	41(18.2)	7(3.1)	24(10.7)	225(100.0)	
인턴	25(35.7)	17(24.3)	13(18.6)	9(12.9)	2(2.9)	4(5.7)	70(100.0)	
레지던트1년	21(40.4)	11(21.2)	8(15.4)	3(5.8)	2(3.8)	7(13.5)	52(100.0)	
전체	100(28.8)	81(23.3)	67(19.3)	53(15.3)	11(3.2)	35(10.1)	347(100.0)	

* x2검정결과 집단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음 (P=0.234)

3.2.9.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의 성과예측

응답자의 67%가량이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지원 전공의가 있을때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며, 공식선발이후에도 추가모집을 허용하고, 인턴수련기간을 없애고 레지던트수련만 시키며, 50만원 가량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표11).

표11.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의 성과예측 (단위 : 명, %)

집단군 구분	성과예측 구분					전체
	상당한 성과 기대됨	다소의 성과 기대됨	거의 성과 기대되지 않음	전혀 성과 기대되지 않음	판단하기 어려움	
치대4년생	8(3.5)	139(60.7)	63(27.5)	5(2.2)	14(6.1)	229(100.0)
인턴	2(2.8)	47(65.3)	17(23.6)	1(1.4)	5(6.9)	72(100.0)
레지던트1년	3(5.4)	39(69.6)	9(16.1)	0(0.0)	5(8.9)	56(100.0)
전체	13(3.6)	225(63.0)	89(24.9)	6(1.7)	24(6.7)	357(100.0)

*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묶고 x2검정결과 집단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음(P=0.346)

3.2.10.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중장기대책 필요성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2%가량이 치의학발전을 위해서는 10개 전문과목이 함께 발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표12).

표12.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중장기대책 필요성 (단위 : 명, %)

집단군 구분	중장기 대책 필요성					전체
	전적으로 동의함	상당부분 동의함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판단하기 어려움	
치대4년생	67(30.1)	142(62.0)	8(3.5)	3(1.3)	7(3.1)	229(100.0)
인턴	26(36.1)	42(58.3)	3(4.2)	0(0.0)	1(1.4)	72(100.0)
레지던트1년	9(16.1)	39(69.6)	5(8.9)	0(0.0)	3(5.4)	56(100.0)
전체	104(29.1)	223(62.5)	16(4.5)	3(0.8)	11(3.1)	357(100.0)

*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묶고 X2검정결과 집단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음(P=0.346)

4. 총괄 및 고찰

2005년도 전공의 확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계 신문에서 일부 보도된 바와 같이 정원채정 원칙의 타당성 결여의 문제, 구강내과 구강병리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 등 네 개과의 미확보 혹은 소수확보 상황의 문제점 및 구강악안면외과의 최다미달상황 등의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³⁻⁵⁾

전공의 정원채정과 확보수준 등은 근본적으로 전문과목별 전문의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전문의제도를 운영하면서 전공의수급과정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 양방의료계에서 최근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급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에서 그 타당성은 확인된다.⁸⁻⁹⁾ 그러므로 2005년도 전공의 확보현황에서 파악된 현상적인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과분야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예측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의를수요예측자료가 없는 현 상황에서의 한계를 감안하고서 이번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과목별 정원채정의 타당성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간탈락 등을 고려할 때 전문과목별로 최소한 복수 인원의 채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구강병리과와 예방치과는 각각 한 명씩의 정원을 채정 받았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예측에 의한 정원 채정 방식도 아니고, 전속전문의 수와 전문진료 여건에 충실히 근거한 방식도 아니며, 주로 각 수련병원의 요구도를 받아들여 취합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요예측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전문과목의 최소정원만큼은 채정하여 제시하는 등 정원채정방식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된다.

둘째로,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10개 전문과목 가운데에서 2개과목은 단 한명의 전공의도 확보하지 못했고, 한 개 과목은 단 한명, 또 다른 한 개 과목은 다섯 명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원채정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구강병리과와 예방치과뿐만 아니라, 구강내과는 10명정원에 5명 확보에 그쳤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는 6명정원에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이 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개 전문과목의 균형적 발전을 토대로 국민구강건강향상과 치의학발전을 도모한다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도입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검토된다.

셋째로, 구강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핵심에 놓여있는 구강악안면외과가 65명의 최다정원 채정에도 불구하고, 25명이 미달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수요에 근거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의 적정 수를 산출할 수는 없기에, 이번에 확보된 40명이라는 전공의 수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방의료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듯이,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진료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에 전공의의 미확보는 곧바로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차질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중소수련병원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⁹⁾ 특정 지역권역 내에서 전문진료영역을 담당해주는 곳이 중소수련병원밖에 없는 경우 전공의 미확보는

해당 지역권역의 전문진료 공급에 큰 타격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치과영역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단과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양방의료계의 중소수련병원이 겪는 것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충청권에 있는 다섯 개의 수련병원에서 7명의 정원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전공의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중에서 네 개 수련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수련병원이었다. 올해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공의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충청권 주민들의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전문진료 수요충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검토된다.

그런데, 구강악안면외과 단과수련병원의 전공의 확보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턴제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인턴제폐지로 단과수련병원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양성과정의 주요골격의 하나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방의료계와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강악안면외과 단과수련병원의 문제는 양방의료계의 중소수련병원의 문제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양방의료계에서 중소수련병원의 문제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심도 깊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⁹⁾ 예를 들면, 현재의 레지던트 단과수련병원을 인근의 우수한 인턴수련병원(예, 대학부속 치과병원)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맺도록 하고, 대학부속 치과병원에서 이들 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인턴을 이들 병원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의 다수 미달은 분명히 우려될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미달되는 수준의 정확한 의미 확인과 미확보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2005년도 전공의 모집결과 5명이하의 전공

의를 모집한 4개 전문과목의 전공의기피 현상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기피이유와 대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한 치대4년생과 인턴 및 레지던트1년차의 설문조사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공의를 지원할 전체 인원수가 제한적이고,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치대4년생에 대한 조사결과 32%가량이 인턴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는데(표4), 이는 졸업생의 35%수준인 현재의 인턴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남성의 경우 군필자에서 인턴 지원예정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표4), 2004년도부터 도입된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에 의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8년에는 이들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턴 지원예정자는 현재보다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된다. 그러므로 기피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로, 전공의 지원 목적이 전문의라는 응답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였다(표5, 6). 임상경험충족과 개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또 다른 주요 목적이었는데, 기피 전문과목들이 이러한 목적 충족에 다소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전공의 확보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로부터 치과대학교육과정과 전공의수련프로그램으로 단선화되어 있는 현재의 진료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진료 수준은 아닐지라도 보다 양질의 일반진료를 숙달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셋째로, 향후 2년간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심 전문과목에 대한 응답결과, 현재 치대4년생과 인턴 가운데에서 구강병리학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혀 없었고, 구강내과와 예방치과에 관심을 표명한 자가 각각 1명과 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표7).

넷째로,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이유로는 개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매력적이지 않아서, 수련기간이 길어서, 전문의로서 취업기회가 넓지 않아서, 기대수입이 낮아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9). 이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전공의 지원목적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임상경험충족과 개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지원하는 자로서는 현재의 기피 전문과목이 개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으며 수련기간이 길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기피이유로 나열된 전문의로서 취업기회가 넓지 않고, 타 전문과목에 비해 기대수입이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은 이들 과목을 실질적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검토된다.

다섯째로,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지원자가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 정규모집 후 추가모집을 허용하는 방안, 인턴기간을 없애고 레지던트 수련만 시키는 방안,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순으로 응답하였다(표10). 현재 치과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인턴기간을 없애고 레지던트 수련만 시키는 방안은 비교적 낮은 선호순위를 보이고 있어서, 기피 전문과목 대책의 일환으로 인턴제 폐지를 논의한다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다.

여섯째로, 앞서 제안된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면 다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서(표 11, 12),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검토되었다.

5. 요약

이번 연구는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5년

도 치과의사전공의 모집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치대4년생과 인턴 및 레지던트1년차 36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피현상의 지속가능성과 이유 및 대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전공의 모집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원책정의 타당성결여 문제, 네 개의 전공의기피 전문과목 발생문제, 구강악안면외과의 전공의 최다미달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전문과목당 최소정원 책정 등 정원책정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 필요성 및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치대4년생과 인턴 및 레지던트1년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 전체지원자 수의 한계와 감소가능성을 확인하고 기피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공의 지원목적과 관심과목에 대한 조사결과로부터 향후 2년간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피이유로는 개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매력적이지 않아서, 수련기간이 길어서, 취업기회가 넓지 않아서, 기대수입이 낮아서 순으로 나열되었고, 대책으로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지원자 있을 때 우선 정원배정 방안, 정시모집후 추가모집 허용 방안, 인턴기간없애고 레지던트만 수련시키는 방안, 수련보조수당지급 방안 등의 순으로 나열되었다. 제안된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면 다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설문결과로부터,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의 기피현상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확인된 이유와 대책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검토되었다.

참 고 문 헌

1. 정세환. 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치: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토론회 자료집, 2003;1-22.
2.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 찾기(<http://www.moleg.go.kr/>).
3. 치의신보(1333호); 인턴제도 폐지건의 10개분과학회장 간담회서 의견일치, 2005년1월27일자.
4. 치의신보(1344호); 전문의제 문제개선점 중점논의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2005년3월15일자.
5. 치의신보(1364호); 치의학회, 인턴제 폐지 결의 인력수급 해결책 일환. 치협 이사회에 보고, 2005년5월30일자.
6. 복지부 내부자료. 200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총괄현황, 2005.
7. 복지부 내부자료. 전공의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방안, 2002.
8. 김세라, 장현숙, 유선주 외 2인. 중장기 전문의 수급 및 전공의 수련과정 질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9. 장현숙, 유선주, 박수경 외 1인. 중소병원 전공의 수련활성화 및 선진외국 수련제도 고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10. 신호성, 홍수연, 김명기. 일반치과의사의 졸업후 수련과정: 일차치과치료의 질향상을 위한 방안,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1):12-24.